전북신용보증재단, 연간 출연금 500억원 돌파

재단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도내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반 넓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출연금 500억 원을 넘어서며 도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크게 넓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5일 기준 출연금 조성액이 50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출연금 '500억 원 시대'를 연 첫 사례다.

이번 성과는 전북신보가 처음 도입한 지자체·은행 매칭 출연 방식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금융회사의 법정의무 출연 요율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금융권의 협력이 출연금 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북신보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한종관 이사장은 직접 도내 14개 시·군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은행 임직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또 14개 시·군에 민·관·공·학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출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341억 원, 2024년 482억 원에 이어 올해는 5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은 2,9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11월 말 기준 1조 3,282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내년에는 보증 공급 목표를 올해 계획보다 20.8% 늘어난 1조 4,500억 원으로 설정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종관 이사장은 "출연금 500억 원 돌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보증 재원을 꾸준히 확충해 중소상공인의 성과과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내산 비파잎 연구 확대 근거 마련

농촌진흥청,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효과 확인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비파(Eriobotrya japonica) 잎이 갱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혈중 지질 증가와 인지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갱년기 모델 마우스를 대상으로 비파잎을 실험 식이에 1% 수준으로 섞어 12주간 섭취하게 한 뒤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20%,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콜레스테롤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로 탈출 시간이 40% 이상 줄어 학습 및 공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치도 30% 증가했다.

뼈 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비파잎을 섭취한 실험군의 골밀도는 22.8% 회복됐고, 뼈 내부를 지탱하는 미세 구조인 '뼈 소주' 간거리는 19% 감소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뼈 분해를 억제하는 인자는 48% 늘어난 반면, 뼈 분해를 촉진하는 인자는 79%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비파잎 섭취가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과 정서 개선은 물론, 폐경 이후 뼈 재생과 뼈 대사 균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파잎에서 갱년기 여성의 혈중 지질과 뇌·뼈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기능성 원료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파잎 부산물이 기능성 가공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비파잎 기능성 연구를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 기업 성장 지원·공공조달시장 진출 협력

전북개발공사-전북지방조달청 업무협약…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전북개발공사는 16일 전북지방조달청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창업·혁신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전북개발공사는 16일 전북지방조달청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조달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북지역 우수상품 발굴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혁신제품 실증 지원, 지역에서 생산된 조달물품의 홍보 및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컨설팅과 판로 개척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지역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적극 발굴해 공공서비스 혁신에 활용하고, 지역 생산 조달물품 사용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가져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전주상의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신웅 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지방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기업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세정 지원 강화와 세무조사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기업인들이 국세 행정에서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 육성사업 성과

태성이앤씨, 면진 구조 단열 커튼월 창호 기술 개발 성공

전북테크노파크의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주 소재 알루미늄 금속제창 전문기업 (유)태성이앤씨가 지진과 층간 변위에 대응하는 면진 구조의 단열 커튼월 창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25년 선도기업 육성사업 자율프로그램(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태성이앤씨는 기술 고도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결과, 녹색기술 인증과 Q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또 국제 PCT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이동주 태성이앤씨 대표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집중해 왔다"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고기능성 창호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전북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디지털 금융 협업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6일 카카오뱅크와 함께 대출상품 '같이대출'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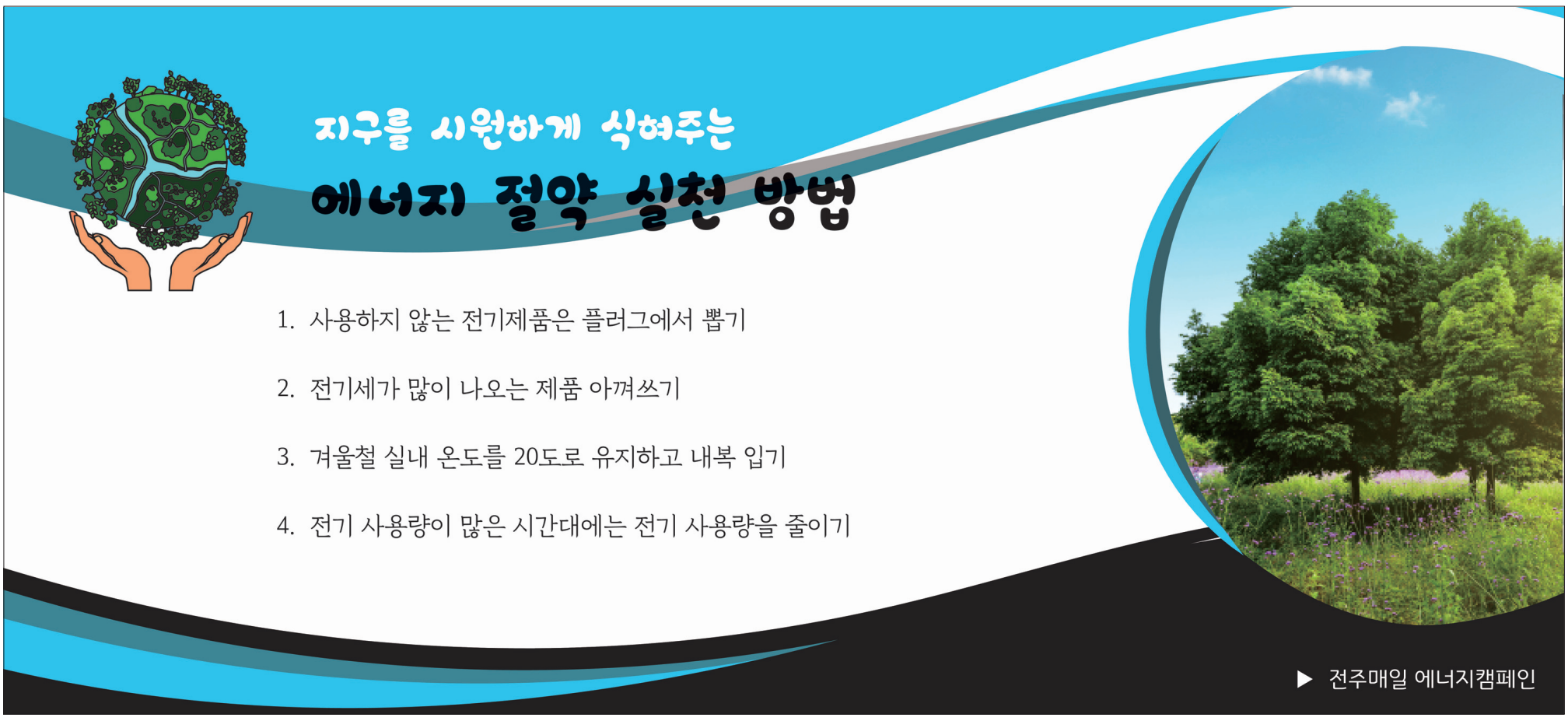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협업해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델로, 디지털 기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상품이다.

'같이대출'은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대출을 5대 5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의 신청 절차만으로 두 금융기관의 심사와 자금 공급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한도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12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금리는 연 4.486%~6.794%(12월 16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공동대출 모델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은행이 플랫폼 기반 인터넷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객 기반을 넓히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대출 상품은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대출 상품을 선보여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